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에덴동산은 이미 회복되었다

육천 년 동안 찾은 씨가 하나 남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육천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그 씨(영생의 씨앗)를 찾았는데, 그리하여 영생하는 방법을 찾았고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게을리하여 하늘의 역사가 더디어지거나 불리한 조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대역사, 그 전체가 어그러지는 위험한 지경이 오는대로 할 수 없이 끝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대로, 그에 따르는 주도면밀한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담과 해와를 찾으면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에덴동산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써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 가지(이긴자의 몸)가 없으면 설 땅이 없고, 하나님조차 멸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하늘나라, 겨우 이루어 놓은 이긴자를 통해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역사를 하고 있으나, 이 영생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생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놀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명예도, 재산도, 친척도, 모든 것을 초개 같이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오직 영생만이 이 세상에 최고로 귀한 것이므로, 최



이긴자 구세주 조희성님

고의 가치관을 영생에 두고 있는 고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도 역시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기대를 걸었던 이 사람 속의 하나님은 크게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말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나의 친척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어떤 사람이 고속버스에 치어서 죽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보나마나 가족들과 더불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활 설계를 가지고 생활전선에서 뛰어다니다가 무참하게 죽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아차' 하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죽으면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가 소중한 것이지 죽고 나면 그야말로 미물의 곤충만도 못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인생들이 영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한량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죽지 않는 법이 나왔다고? 그런데 어딴? 미친소리 하지마!" 하면서 비웃을 뿐이니 정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그야말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때면 평소 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 것도 없고 허망한 것뿐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떤 재기의 기회가 있더라도 하면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 사람은 죽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하고도 참혹한 운명을 목전에 두고 살면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으로 역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란 그게 개나 돼지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주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답한 사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앞날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각이 없고 안목이 짧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은 답답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사람이란 시간이 흐르면 병이 들어 죽거나 재난에 의하여 죽거나 불시의 사고로 죽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죽어야만 했는데 죽지 않는 방법이 나왔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써 정신적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란 관할 일인데 관심도 없고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영생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삶을 살아온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 틀림없이 죽지 않는 비결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비결을 실천하는 데에 생명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에 자살을 기도하고 실천에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사람이란 누구나 살아

봤자 백 살 이내에 여김없이 죽는다. 그뿐 아니라 인류역사가운데 누구도 백 세 미만을 사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었다. 누구든지 조금 오래 살게 되면 늙고 병들고 고생만

잔뜩 하다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에 투신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후 적극적으로 영생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기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과 같으므로 이 사람은 자살 시도 이후에 오히려 영생의 소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경지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끝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완전히 하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십 년 있다가 죽으나 백 년 있다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럴진대 지금 죽으면 고생이라도 덜하고 죽으니가 차라리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고로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죽음의 경지에서도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원대한 포부를 가져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보람이 증대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철학이었으며 이러한 철학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굳건히 심어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대한 포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죽지 않는 길을 찾게 된 것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과연 죽기를 싫어하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부모한테서 온 것입니다. 생명도 부모에게서 유전된 것이지만 죽기 싫어하는 마음도 부모에게서 유전된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유전이 됐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부님,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부님, 나중에는 아담과 해와 즉 인류의 조상으로서 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유전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유전된 우리 인생이 죽음을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즉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은즉 우리 인간이 선악과,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영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죄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은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나쁘게 먹는 것도 죄가 되므로 마음으로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누구든 사춘기에는 여자 치맛자락만 쳐다보면 마음이 이상해 집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자 치맛자락을 안 쳐다보려고 평범하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영육분리의 발달과 그 과정을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뿌리 깊은 분리의식이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분리의식이란 것이 인간의 피부 깊숙이 뿌리를 두고 있고 삶의 전반에 걸쳐 무성한 가지를 치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에서 백 가지 사고와 행동이 분리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 정확하다. 아니 삶의 거의 전부가 해당된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이성적 지성은 이 분리의식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고 거북스레 느끼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마음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려는 열정과 탐구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새로이 펼쳐진 주장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신분석학적 과학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온정심을 집중하여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하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리의식에서 파생되는 인간 삶의 고뇌와 갈등, 총체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해결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첫째, 우주와 인간과의 분리

지금까지 인류는 우주와 인간의 기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② 인간의 의식차원 5(피의 스펙트럼)

원을 알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그 실체에 대한 윤곽을 잡아냈지만 여전히 진리는 찾지 못하고 그 주위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에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니 우주와 인간을 분리해서 보고 이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소상히 밝혀 본래가 하나에서 나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물질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의 원자를 놓고 보면, 우주나 인간의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지구, 그 안에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흔히 동서양의 철학은 우주를 매우 주시한다면 인간은 소우주라고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 인간과 우주는 본래가 하나였으며 동본동성(同本同性)이었다. 그러므로 우주가 존재함으로 인간이 존재하고, 또한 인간이 존재함으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 된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그에 따른 무수한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신과 인간의 분리

현존하는 종교 중 인류가 대다수 신앙하는 대표적 거대 3대 종교인 유(儒), 불(佛), 선(仙)을 문자적 측면에서 보아도 모두가 인간 중심으로 신을 숭배하고 신앙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존재함으로 신을 숭배하고 신앙한다는 사실을 언뜻 알아차려야 똑똑한 사람이라 하겠다.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神性)이 외부로 투사되어 묘사되고 그 성품을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인간의 궁극의 삶의 지향점이 바로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신인합일神人合一)가 되어야 함

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데도 신을 위해 인간끼리 적대시하며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참상이 벌어진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됨을 이라 할 수밖에 없다.

셋째, 몸과 마음의 분리

가장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것이 몸과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증폭되어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정보에 대하여 그 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대화하는 지 모르겠지만, 특히 영육분리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논쟁이 뜨겁다.

진리란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과 육의 문제만큼 어렵고 복잡하여 더더욱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실마리는 쉬운데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자면,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또 역으로 마음



넷째, 자신과 타인과의 분리

인류의 대다수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극단적으로 나와 다른 남남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살고 있다.

그나마 가족과 친척은 자신과의 혈연관계와 인척관계로 다소 친밀성을 띠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 또한 우습게도 인간의 속 좁고 근시안적인 사고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만 깊고 멀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제대로 통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갇혀 고통당하지는 않게 된다. 현재 법적으로 8촌만 넘어가면 남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민족끼리만 놓고 봐도 한민족이요 같은 동포라고 외치지 않는가.

이것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인류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이다. 우리가 단편적이고 어느 한 각도에서 보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분리의식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표적 분리의식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그 해법도 써보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피의 원리와 작용을 통해 완벽한 설명과 그 해법이 되는 결합의식과 신인합일의 합리적·과학적 논거를 탐독해 주기를 바란다.*